우리 장군님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하늘도 정말 무심하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절통한 날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그처럼 친근하신 우리 어버이, 그처럼 인자하고 다정하신 우리 어버이, 그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온넋을 불태우시며 헌신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애오라지 그이의 건강만을 간절히 바라던 우리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을 하루빨리 꽃피우시려, 우리를 잘살게 해주시려고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천만뜻밖에도 그 길에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최대의 국상을 당한 온 나라는 전고미문의 슬픔에 잠기였다.

우리 장군님 천신만고하시며 위대한 헌신과 바꾸신 강성부흥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는 력사적인 시기에 잃어서는 안될분, 가시여서는 정녕 안될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우리 천만군민의 호곡이 하늘에도 땅에도 꽉 차넘친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을 당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통곡이 행성을 울리고 산천도 피터지는 비애에 몸부림친다.

태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한들 이처럼 원통하고 이처럼 한스러울수 있으랴.

인민을 위해 태여나시고 인민을 위해 위대한 사랑의 정치를 펴시였으며 인민을 친혈육처럼 사랑하시고 조국의 번영과 존엄을 위해 그렇게도 강인하게, 그렇게도 불사신같이 분투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심장도 고동을 멈출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인민, 사랑하는 조국을 두고 정녕 가실수 있단 말인가.

어버이장군님의 품을 이 세상 전부로 알고 그 품에 안겨 행복과 기쁨만을 받아안으며 장군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갈 노래로 온 세상을 뜨겁게 울리던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줄 어찌 알았으랴.

《아, 어버이장군님, 정녕 가신단 말입니까. 그렇게도 일찍 가시면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곡히 당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어떻게 우러를 면목이 있습니까.》

《장군님! 어버이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이 나라, 이 인민을 두고 어떻게 가실수 있단 말입니까.》

《어버이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실 불타는 소원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비통하게 떠나시면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린 과연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인민들이 잘살게 되면 꼭 휴식을 하겠다고 하시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갑자기 가시면 장군님께단 하루의 휴식도 마련해드리지 못한 우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품에 우리 이제 더는 안길수 없단 말인가. 그 다정하신 음성 이제 더는 들을수 없단 말인가. 아, 아버지! 가시면 안됩니다.》

…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를 졸지에 잃은 우리 조국땅에 피눈물의 대하가 무겁게 짓누르며 사품쳐흐른다.

우리 인민, 이 땅보다 더 큰 절통함을 당한 인민과 나라를 력사는 아직 모른다.

그이이시자 곧 조선이고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며 주체혁명위업인 우리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세계정치의 원로이시기 전에 대성인이시고 탁월한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걸출한 혁명가, 열화같은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격동하는 세기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비상한 사상리론활동, 만유인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인류를 자주의 항로로 확신성있게 이끄시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세계정치를 주도하신 불세출의 정치원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류가 낳은 그처럼 위대하고 천재적인 위인을 잃은것은 우리 행성의 크나큰 손실이며 그것은 지나온 인류력사총체와도 바꿀수 없다.

아니 불멸의 사상으로 자주시대를 향도하신 만민의 태양, 천만의 령장과도 비길수 없는 불세출의 선군정치가, 우리모두의 가슴에 후손만대로 길이 전할 사랑을 남기신 인민의 어버이, 력사에 등장한 정치가들의 공적을 다 합쳐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업적을 쌓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절대로 가실수 없다.

하느님도 줄수 없는 자주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안겨주신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어찌 온 세상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에서 가실수 있단 말인가.

지난 수십성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편단심 어버이장군님만 믿고 장군님과 함께 기쁨과 슬픔의 언덕을 무수히 헤쳐오며 그 길에서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오를 이룬 천만의 자식들을 두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정녕 가실수 없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애지중지키우신 사랑하는 군대와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으며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있으면서 군민대중의 생활을 사랑과 은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은 명실공히 이민위천이고 장군님의 정치철학도 인민중심이였다.

인민이 있는 곳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집무실이였고 인민행렬차가 우리 장군님의 댁이였다.

세상만물을 살리는 해빛과도 같은 미소로 만민에게 행복과 기쁨, 희망을 주시고 그 열로 온 나라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신 인간사랑의 화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나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나는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줄 생각밖에 없다!

자나깨나 오직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인민을 위한 고생을 오히려 락으로 여기시고 이처럼 모질게 추운 날에도 바람세찬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다가 그 길에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신 우리 어버이!

위대한 헌신으로 한생을 불같이 사신 우리 장군님, 그 열렬한 사랑의 열로 인민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생활하시면서 인민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초불처럼 태우신 그이, 인민에게는 모든것을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우리 어버이를 그이의 자식들인 우리가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리는 것을 삶과 투쟁, 행복의 전부로 알고 천만이 성벽으로 결사옹위하여온 우리 어버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멸할 사상으로 가득차있고 그이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으로 빛나고있으며 그이의 고결한 풍모로 뜨겁게 달아있는 이 땅에서 헤여져선 살수 없는 인민과 함께 영생하신다.

전설적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날로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과 더불어, 날로 거창한 승리를 떨치는 선군혁명위업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으로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실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천만군민의 이 심장의 목소리가 그 품 떠나 못사는 장군님의 아들딸들이 그이께 다지는 충정의 맹세이다.

지난 10월 8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진심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일군들은 앞으로도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여, 우리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대로 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우리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함께 선군혁명령도의 길,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장군님의 숭고한 리상을 가장 완벽하게 꽃피워나가시는 열혈충신의 귀감을 보았고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령도의 극치를 보았으며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받들어온 지난날의 산체험을 통하여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선군조선은 백천번 더 용감무쌍히 일떠설수 있고 그 길에서 반드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라는 철의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지 않았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모시지 못한 피터지는 아픔을 천만배의 충정과 힘으로 바꾸어 선군조선의 오늘과 빛나는 래일을 한가슴에 안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만이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민이 영원한 우리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심장으로 다지는 의리의 선서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언제나 강하시고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승리의 력사는 무궁토록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인민은 장군님의 야전복 못 잊습니다!

정녕 이런 때 필요한것이 기적이 아니랴.

대계도의 기적, 함남의 기적, 련하의 기적…

우리 얼마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마련된 이 땅의 기적들을 외워왔던가.

하지만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이 시각처럼 기적을 목메여 외우며 애타게 찾고 또 찾아본적은 없다.

인민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곁에 두고 그렇게 가실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조용히 눈을 감으실수 있단 말인가.

지구여, 이제라도 자전을 멈추라. 혹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에 쌓인 피로를 푸시려고 잠시 쪽잠에 드신지 어이 알랴.

어버이 우리 장군님께서 꿈결에서나마 자신을 찾고부르는 인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불쑥 일어나실것만 같다.

그리움!

어버이장군님께서 계실 때 화산처럼 분출하던 인민의 그 그리움이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이 시각 더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잠길수록 우리의 눈가에 못 견디게 떠오르는것은 정녕 무엇인가.

우리 장군님 입고계신 야전솜옷이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벗지 못하신 야전솜옷이다.

지금도 눈감으면 선히 떠오른다. 12월의 그날도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전투장들을 향해 야전솜옷차림으로 찬바람부는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시였을 장군님의 모습이.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이 땅의 찬 눈비를 다 헤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12월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야전솜옷을 입고계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것만 같다.

야전솜옷, 그것이 과연 어떤 솜옷이던가.

언제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깊은 추억속에 외우신것처럼 색날은 그이의 야전솜옷은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시던 때부터 지금까지 입고계신 야전복이였다.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 고난의 행군의 상징이라고, 자신께서는 그 준엄한 력사를 잊을수 없어서 이 솜옷을 벗지 않았다고,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야전솜옷을 계속 입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이날따라 가슴저리게 어려온다.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이 장군님의 그 색날은 솜옷, 야전솜옷자락에 스며있던가.

눈보라길에 얼어든 몸을 녹이시던 가슴치는 사연도 야전솜옷과 더불어 새겨졌고 모닥불가에서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며 행복의 새봄을 가꿔가시던 눈물겨운 이야기도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길에서 태여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존엄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는 야전솜옷을 섶이 닳도록, 색이 바래도록 벗지 못하시였다.

그렇듯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성부흥의 새봄을 뜨겁게 갈망하신분이, 그래서 누구보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신분이 단 한순간의 락도 누리지 못하시고 초강도강행군길에서 순직하셨으니 인민의 마음이 어찌 비통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따뜻한 봄날은 인민에게 다 안겨주시고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야전솜옷자락으로 이 땅의 겨울을 막아주고 가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이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눈보라한생, 후손만대가 길이 전해갈 애국, 애족, 애민의 한생이였다. 그래서 인민의 마음 더더욱 눈물에 젖어든다.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바꾼 락을 누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니, 자식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처럼 고생많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까지 야전솜옷을 그냥 입으셨다고 생각하니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저 하늘의 태양도 창공에 떠올라 빛과 열을 주고는 다음날이면 다시 떠오를진대 장군님을 이 땅에 다시 모실 날은 과연 영영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였다.

아직도 인민의 눈에 야전솜옷차림인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생생한데, 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자고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한데 어떻게 그이께서 우리곁을 떠나셨다고 생각할수 있으랴.

그이께서는 지금도 인민과 함께 2012년의 태양절을 마중가고계신다.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벗지 않겠다고 하신 그 사연깊은 야전솜옷자락을 기발처럼 날리시며 천만군민을 강성대국건설대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계신다.

본사기자 박옥경

장군님은 야전렬차에 계신다

온 나라 인민이 친어버이로 믿고 따르던 장군님이시였다.

평범한 병사들과 로동자, 농민들, 아이들과 로인들도 꿈속에서도 그리며 기다리던 장군님이시였다. 초소와 학교,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들에서 야전렬차의 기적소리, 야전승용차의 경적소리와 함께 문득 들어서실 장군님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정녕 믿을수 없는 소식에 온 나라가 비애의 바다에 잠겼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렸다 한들 이처럼 비통한 곡성이 하늘에 닿고 삼천리강토의 산천초목이 몸부림칠수 있으랴.

하늘처럼 여겨오던 친어버이를 다시는 뵈올수 없다는 비길데 없는 상실의 아픔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산산이 찢어갈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하고있습니다.》

이해도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던가. 온 나라 인민이 새해 첫 아침을 기다려 흥성이던 한해의 마지막날에 야전차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고 병사들과 함께 계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1월의 혹한속에서 남포시와 평안북도안의 공장들 그리고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중앙동물원, 룡악산샘물공장, 사리원시와 함흥시 등 온 나라 방방곡곡의 초소와 공장, 기업소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다.

룡악산샘물공장에 들리시여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샘물병의 크기를 알맞춤하게 할데 대하여 깨우쳐주기도 하시고 사리원시의 이름없는 식료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시여서는 장절임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게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 사랑의 걸음을 이으시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가스화대상건설장,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우리 1월의 마지막날인 31일에 접하지 않았던가. 이해도 이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며 삼복철의 무더운 여름이 흘러가고 가을이 지나 새 겨울이 왔다.

온 한해를 그렇게 야전렬차와 야전승용차에서 보내신 장군님이시였다. 오늘은 자강도에 계시고 래일은 함북도와 량강도에 계시며 야전렬차를 집무실삼아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병사들속에, 인민들속에 계신 어버이장군님,

그 길우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장엄한 선언으로 지식경제형경제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며 온 나라를 격동케 하시고 함남의 불길을 지펴올린 위훈자들에게 몸소 축배잔도 찧어주신 우리 장군님,

이 나라 그 어느 초소나 일터, 그 어느 가정에나 우리 장군님 타신 야전렬차와 야전승용차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간직되여있다.

온 나라 인민이 단잠에 든 깊은 밤, 이른새벽에 자신께서는 끊임없는 초강도렬차강행군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잠에서 깨여날세라 렬차의 기적소리마저 울리지 못하게 하신 사연이며 출근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기다려 렬차에서 쪽잠에 드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 눈물겨운 이야기를 누구나가 새겨안고있다. 진눈까비 내리는 겨울날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얼음덮인 칼벼랑길을 넘어 초소에 찾아오신 장군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을 터뜨렸다는 초소의 병사가 보내온 편지를 간직한 가정들을 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어제 금방 동해안의 대화학기지에서 화학비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접하였는데 하루밤사이에 야전렬차로 천수백리길을 달려 서해북단의 락원땅을 찾으신 장군님을 우러러 솟구치는 눈물을 쏟고 또 쏟았던 우리 인민이다.

우리 장군님 야전렬차와 더불어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길에서 만나주시고 내세워주신 사람들을 어찌 천이나 만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천만군민의 마음속깊이 이렇게 새겨진 친어버이의 모습이고 꿈속에서도 함께 달리던 장군님의 야전렬차, 야전승용차이다.

이런 인민에게 이제 더는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모습을 뵈올수 없다는 사실이 어찌 용납될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장군님은 오늘도 야전렬차에 계신다. 언제나와 같이 야전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찾고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초소도 찾으시고 공장과 농촌, 학교와 병원도 현지지도하시며 극장과 마을에도 들리신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약속하신 강성대국에로 걸음걸음 이끄시며 우리의 휘황한 래일을 축복해주고계신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야전렬차에 계신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김진수

멈춰서라, 시간이여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믿을수가 없다.

우리모두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초강도강행군으로 온 나라를 누벼가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환하신 모습에는 얼마나 무한한 정력이 어려있었던가.

그런데 쌓이신 로고로 야전렬차에서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인가. 하늘땅이 무너진다 해도 이보다 더 심장이 찢기는 비보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민들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인민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시며 강성부흥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오시느라 삼복철의 무더위도, 대소한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년내내 강행군길에 계신 어버이장군님!

《아, 장군님! 떠나가셔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비장하게 울리는 추도곡의 선률우에 진하디진한 피눈물이 쏟아져내린다. 우리가 충정을 다하지 못하여 어버이장군님 쉬지 못하시고 이 추운 때 길을 떠나시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여진다. 심장이 졸아든다.

눈보라세찬 2월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장군님이시였기에 우리 인민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며 위대한 혁명생애를 줄기차게 이어오시지 않았던가.

아, 절통하구나. 야속하구나. 시간이여! 세월이여!

너 흐름을 멈추고 위대한 어버이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높뛰게 하라.

온 겨레가 따르고 온 세계가 흠모하는 절세위인이신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세상에 더욱더 밝은 빛을 뿌리시게 하라.

아버지장군님!

우리는 압니다. 피눈물속에 주저앉아서는 안된다는것을, 최대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그렇다. 조국이여, 인민이여!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를 영원히 심장에 새겨안고 그이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리상들을 다 아름답게 꽃피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또 한분의 태양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김정은동지의 필승의 령도따라 척척척 발걸음드높이 선군혁명의 한길로 변함없이 가고가리라는것은 피눈물을 삼키며 다지고다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불타는 맹세이다.

시간이여, 멈춰서서 천만군민의 이 거룩한 심장의 맹세를 력사에 새기라!

본사기자 김명훈

천추만대에 새기리

아, 비통하고 절통하다. 그처럼 일일천추로 념원하며 심혼을 다 쏟아 이루어가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마침내 성취하실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온 민족, 온 겨레와 함께 환희와 보람속에 맞으시려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도 머지않은 때 우리의 어버이께서, 우리의 운명이시고 희망이시고 미래이시며 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열화같이 불태우시던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다니 이것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천만군민의 가슴에 꽉 찬 슬픔을 온 지구에 헤쳐놓은들 다 담을수 있으랴.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깨진듯 충격은 하늘에 닿고 메울길 없는 뼈아픈 상실의 아픔에 가슴이 무너져내리건만 가장 비통하고 절통한 이 시각 우리 전체 조선인민의 의식과 삶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것이 있다.

아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절대로 가지 않으시였다. 꿈결에도 그 품을 찾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진대 어찌 그이께서 가셨다고 말할수 있으랴. 눈서리 날리며 흐느끼는 저 철령으로부터 세차게 파도솟구쳐 몸부림치는 서해의 한끝 이름없는 섬초소까지 병사들을 찾아 불철주야로 이으신 선군의 전선길들에, 인민들을 찾아 들리시였던 이 땅의 방방곡곡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의 사랑의 길들에 그이의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 그이의 자애로운 미소와 어버이손길, 그이의 뜨거운 숨결과 고귀한 체취가 하늘땅 가득히 차넘칠진대 어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다고 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인민이 영원히 받들고 따르는 위인의 생애는 한계가 없다. 육체적삶의 길이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청사에 투쟁과 업적으로 빛나는것이 위인의 생애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세계를 경탄시키고 인류를 격동시키는 숭고한 충정과 불면불휴의 애국헌신,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히 빛내이시였다. 그이를 떠나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발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의 대승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을 보유한 무적의 군사강국,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적진군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총대를 높이 들고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선군시대를 개척하신 천출명장!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민족부흥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이적인 전화위복의 위대한 창조자! 세계정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시며 선군조선을 칭송하고 따라배우는 새 세계를 배출하신 희세의 정치가!

그이께서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잠시의 휴식도 모르고 사업하시였고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인민행야전렬차에서 서거하시였다. 이 땅의 천만군민을 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순직은 절세위인의 생애에만 있을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순직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들에 걸으신 저 함남의 공장길들과 수도의 공장, 상점길들에서 아니 그이께서 몸소 지펴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인 함남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모두의 가슴으로 끝없이 울려오고있다. 병사들이여, 인민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라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구상이고 자신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라고 뜨겁게 당부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그 음성이!

우리 인민은 장군님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새길것이며 장군님의 당부를 잊지 않을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 영명하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의 유훈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변함없이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입니다.

본사기자 박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낮에 밤을 이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인민들

ㄱ-1122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